

승오스님의

정전심기

육조단경 ①

인간이 비록 문화를 창조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만물의 영장으로 자처하지만 예고 없는 불행에는 속수무책이며, 다만 운명을 저주할 뿐이다.

불교는 생·노·병·사(生老病死)와 우·비·고·뇌(憂悲苦惱)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동기가 바로 생사문제의 해결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늘진 곳과 어두운 구석을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밝은 곳과 양지만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찌하랴! 방안에서 행복 미소를 지을 때, 불행은 곧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불교는 소극적이고 무력한 인생관을 말하는 종교는 아니다. 고통과 불행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응시하고 도전하며 대

참나는 현상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상계를 초월한 것으로서 살아있는 마음이며, 곧 자성이다. 현상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자유자재한 부처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육조단경》에서 혜능스님은 “정과 혜는 하나(定慧一體)”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 곧 불교 수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입문에서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수행자가 명심해야 할 3학(三學), 즉 계·정·혜(戒定慧)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릇된 것을 막고 악한 것을 그치게 하는 것이 계(戒)이고, 6근(六根: 눈·귀·코·혀·몸·생각)의 5관으로 객관적인 경계를 교섭하여 정(定)이며,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하여 밝게 비추는 것을 혜(慧)라고 한다. 본론에서는 정과 혜는 하나(定慧一體)라는 정과 혜가 둘이 아니요 체(體)와 용(用)이 둘이 아닌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육신 아닌 자성이 참나

선정과 지혜는 둘 아닌 하나

결하는 것이다.

오늘은 6조 혜능(六祖慧能) 스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육조단경(六祖壇經)》을 소개하려 한다. 《육조단경》의 요체는 “무상계(無常戒)와 ‘마하반야바라밀법(摩訶般若波羅密法)’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무상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의 육신은 참된 나(眞我)가 아니며 눈에 보이는 현상계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마음의 본 바탕이 그대로 부처라는 뜻이다. 자성(自性)이 본래 청정한 것이 법신(法身佛)이고, 그 청정한 본 마음을 슬기로운 광명으로 비추어 보는 것이 곧 보살(觀世音)수행한 공덕으로 받는 부처의 몸이며, 우리의 자성은 일체의 번민과 현상계를 초월한 것이므로 본래 공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아무 것도 없는 공적인 가운데서 무공무진한 변화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천백화화신(千百億化身)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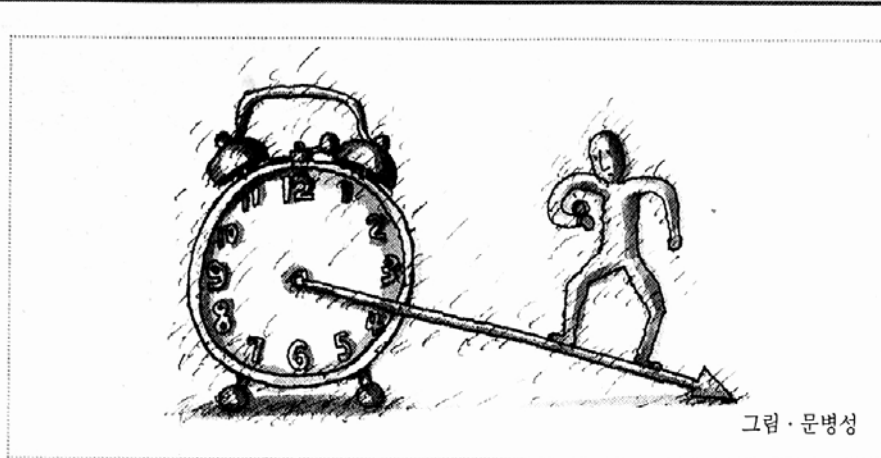
우리의 육신은 여러 개의 구성요소가 모여 이루어졌기에 물질적인 것에 불과한 육신이나 온생명일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참나’도 아니며,

“선지식이여!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혜로서 근본을 삼으니 대중은 어리석게 정과 혜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지어다. 정과 혜는 일체요 둘이 아니며, 정은 혜의 체요 혜는 정(定)의 작용이다. (善知識者我此法門은 以 定慧로 爲本이니 大家는 勿迷하여 言定慧別이여다. 定慧는 一體로 不是二니 定是慧體요 慧는 定用이여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나다. 남이다 하는 주객이 떨어진 정(定)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 지혜가 바로 생활규범이며,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계(戒)임을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정과 혜는 어떻게 성취해야 하는가?

혜능스님은 우리에게 《육조단경》을 통해서 정과 혜를 닦아 반야지혜(般若智慧)를 성취하기를 권하며, 올바른 부처노릇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대지에 뿌리박은 거목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쓰러질 줄 모르는 것처럼 수행의 토대에 뿌리를 내린 반야성(般若城)은 쌓아 올린 번민과 고통이 다쳐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는 것이다.

■ 해인사 승가대 교수



그림·문병성

삼세가 내마음 안에 있다

불교와 과학 <4>

미래

미래는 무엇인가? 기다리지만 하면 오는 것인가. 미래는 항상 좋지만 한 것인가. 그래서 미래는 유토피아인가? 이런 질문에 부딪칠 때 우리는 난감하기만 하다.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닥칠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된다. 어떤 이는 그 불안감 때문에 미래를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과거에 집착하여 반복된 삶의 현재를 살거나, 어떤 이는 철저한 과학적 탐구를 통하여 실험실에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점치는 집을 찾아 막연한 자기 위안을 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희망의 기도를 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과학자가 보는 미래는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다. 그 하나는 우리가 과학 교과서에서 배우고 또 한 종류가 지배하는 일상 세계에서 익숙한 물리공간에 대한 뉴턴역학의 해석이다. 뉴턴 역학이 말하는 시간의 뜻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운동 방정식의 초기조건만 알면 미래사태의 모든 양상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다. 둘째 관찰대상과 관찰자는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는 과학이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셋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란 모든 자연물이 시켜 표현되어야 한다. 결국 과학에서 말하는 시간의 의미는 과거를 알 수 있듯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며,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동질적임을 말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과학적 의미의 시간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한 시간 개념이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서 말하는 시간이란 시간이 앞으로만 간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란 모든 자연물이 미래 시간에 가서는 결국 최고의 무질서도를 갖는 쓰레기로 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무질서도의 증가와 시간의 흐름은 같은 방향이어서 앞으로 계속 앞으로만 가며 절대로 뒤로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서구 과학이 바라보는 시간의 의미는 시간의 동질성과 앞으로만 가는 화살의 시간으로 압축된다. 이러한 서구 과학의 시간 개념은 단순히 과학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구·전반에 걸친, 생활사본만이

아니라 과학이 지배하는 현 시대, 나아가 전지구적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시간이 되어 버렸다. 그 전형적인 사상사적 범례가 바로 서구 유토피아의 시간관이다. 유토피아는 지금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믿음의 시간관이다. 그 장밋빛 미래의 시간이 현실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관계였다. 유토피아의 뜻 자체로는 현실적 도래가 불가능하지만 그런 좋은 미래가 온다고 가정함으로써, 현재의 불안정한 삶을 완전한 삶으로 이끌고 가려는 희망의 추동력으로서의 시간관이다.

이처럼 과학과 물질의 시간은 앞으로만 가며, 좋은 것은 반드시 미래의 물리적 시간에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시간은 사회적 약속을 위해서 필요하고 과학적 측정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현장과 깨달음의 미래를 담아 낼 수 없다. 그래서 물리적 시간과 깨달음의 체험적 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해를 엮어야 한다.

미륵 사상에서도 시간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륵불은 서구의 미래적 유토피아 사상과 비슷한 외형적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륵세계의 시간이 과학의 물리적 시간과 다른 점을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과학 아직 오지않은 시간

불교 체험하는 순간 도달

이선재라는 한 제자가 스승에게 언제 미륵이 이 세상에 도래할지를 물었다. 그 스승은 2만 5728년 후에 올 것이라고 답해 주었다. 그래서 이선재는 그 미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수행의 길을 밟고 있었다. 어느덧 2만 5728년이 지났지만 미륵은 오지 않았다. 분개한 이선재는 스승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스승은 항상 자비무량 2만 5728년 후라고 답했다. 즉 체험적 의미로서 2만 5728년을 말했는데, 이선재는 어리석게도 물리적 의미의 미래를 기다린 것이다. 당시에 이선재는 자신의 마음 속에 미륵이 함께했는지도 모르고, 과거에 이미 와 있었는지도 모를 그런 시간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이선재와 더불어 우리가 많은 이들이 미래 희망의 시간을 서구 유토피아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에 걸어 놓고 있다. 그러나 점치는 집에서 회에서, 절에서 까지 나의 물질적 욕심만 채우려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나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는 희망의 시간들, 하찮게 보이는 나뭇 한 잎에 이미 존재하는 깨달음의 시간들은 밖의 일이 아니다. 이제 이선재는 기다림과 삶의 설움을 느끼면서, 내일의 미래가 아닌 오늘의 미래를 조금은 알게 되었다.

■ 최중덕/상지대 교수(jchoi@chiak.sangji.ac.kr)

일자리·돈 주며 개신교 개종 유혹

지구촌 불교 / 불교국가의 선교사

지난 9월 24일 네팔 룸비니에서 두 종교 지도자들이 모임을 가졌다. 불교와 힌두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종교 지도자들은 놀랍게도 이 자리에서 기독교의 선교 활동에 공동 대응하는 데 동의했다. 더욱이 두 종교지도자들은 이날 모임에서 ‘정신적 범죄’ ‘기성 종교를 향한 상전’ 등의 말로 선교 활동을 비판했다는 게 AP 통신의 보도 내용이다.

대체 불교와 힌두교 지도자들이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공동 대응’을 결의한 속내는 무엇일까? 그것은 힌두교계 위원회(The World Hindu Council)의 통계에서 엿볼 수 있다. 위원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불교와 힌두교의 성자인 인도에만 기독교 선교사가 약 2십여 만 명이 넘는다고 있다. 이 수는 파키스탄의 군인 수보다 더 많다.

사실 아시아 기성종교 지도자들의 위기감은 인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캄보디아나 몽골 등과 같이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10년 전 이 곳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수는 고작 2백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 캄보디아에는 6만여 명의 선교사들이 캄보디아 청·장년들의 정신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캄보디아인 선교사 크리스토퍼 라펠(Christopher La Pel) 씨는 “우리는 말 그대로 구원자(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 부처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하루에만도 90여 명

인도 선교사 20만명 활동

‘캄’·몽골도 기독교 신자 늘어



◇ 캄보디아 바탐방 시의 선교 현장.

의 불자들이 세례 의식을 치르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

불교를 버리고 개종을 선택하고 있는 캄보디아인들은 불교보다는 기독교에서 진정한 삶의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쟁 난민촌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인 소우에(Yin Soeum·29)은 “우리가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선교사들이 일제와 돈을 주기 때문”이라며 “캄보디아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지 않고, 설사 그렇게 됐더라도 불교가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을 제공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몽골의 전통 종교인 불교 역시 사회주의 탄압에서 벗어나기가 무섭게 또 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트리사이클>지는 “몽골에서 선교사들이 현지 불자들의 개종을 집요하게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할 만큼, 선교사의 호전적인 선교 활동으로 존립 기반조차 붕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룸비니에서 열린 불교·힌두교 종교 지도자 모임은, 아시아의 전통 종교 문화가 기독교에 의해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과 극심스럽게 과고드는 선교 활동을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룸비니 모임과 함께 아시아에서의 선교를 보도한 AP 통신의 크리스 폰테인(Chris Fontaine) 기사는 위기감이나 적대감만을 느끼고 대하는 것으로 표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해, 불교나 힌두교 종교지도자들에게 적잖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그는 아시아인들 스스로 자신의 종교와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 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不老 仙經藥也 (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나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과학자 옌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능력”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 446-4422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효능: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감질, 영안실)

生氣香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중풍·백·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적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동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